

# 사설

## 종교인 평화모임

4월 25일에서 27일에 걸쳐 북경에서 남북한과 일본의 종교인들이 평화를 위한 모임을 가졌다. 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ACRP), 조선종교인평화회의(KCRP), 한국종교인평화회의(KKRP), 세계종교인평화회의 일본위원회(WCRP/JAPAN)가 연합한 이 회합에 우리측에서는 고산 조계종 총무원장을 위시하여 불교와 원불교 개신교 유교 등의 지도자들 30여명이, 그리고 북한측에서는 장재언 조선종교인평화회의장 등 5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97년 북경에 이어 두번째인데, 회담을 마친 후, 그동안의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1999 북경선언'을 채택했다.

선언의 주요 골자는 삼국이 그동안의 적대관계와 입장 차이를 극복하고, 종교인으로서의 양심과 영적 일치에 기초하여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자는 것이었다.

실천강령으로는 분단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정치작업,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을 결의했다. 고산 총무원장도 인사말에서 대립과 갈등을 넘어 상생과 평화를 열어가는데 동북아 종교인들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식량난 타개를 위해 다양한 대북지원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20세기 동북아는 제국주의와 식민지, 그리고 냉전과 열전의 상흔을 공유하고 있다. 남북한과 일본은 서로가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였다. 그 고통과 불행은 치유하기 위해서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이데올로기의 대립부터 접어야 한다. 그 일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이 민간과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경제 영역에서의 벽 허물기를 시발로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도 활발해졌다. 작금 정부는 영성을 비롯한 일본의 문화를 수용하기로 하고, 수입선 다변화 정책을 과감히 완화했다. 북한에 대해서

도 간간히 터지는 무력도발에도 불구하고 햇볕정책의 기초를 흐트리지 않는 유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정치 경제적 문화적 방식은 도저히 타협이 불가능한 관계를 떠나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의구심과 경계의 대상이 된다.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분별의 열린 가슴과 영적 태도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종교인들의 역할은 근원적이고 근본적이다. 진정한 평화와 상생의 구현을 위해 남·북한, 일본의 종교인들이 두차례 내리 만나 무차대회를 열고 있는 큰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런 점에서 북경선언은 주최측의 "솔직한 의견교환, 성의있는 토의, 만족스러운 회의"라는 자평에도 불구하고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이념은 막이 빠져 있고, 실천강령은 소략하다. 월간 7·4 남북성명을 이념으로 내건 것부터 현금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자주적 판단의 결여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고, 강령으로 내건 것 가운데 진정 실천적인 것은 대북식량지원 하나뿐이다. 도대체가 기도와 불공을 드리면서 다음에도 다시 만나자는 "금후의 행동계획과 구체적인 실천" 이랄 수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

다른 종교의 참석자들은 논의로 하고 싶다. 불교라도 급속히 현실감을 키우고 현장의 목소리를 소화해 내는 훈련을 해야 한다. 인드라 그물 중종무진에 고립된 사실, 나와 무관한 사건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화염의 크나 큰 가르침 아니던가. 자성은 좌선이나 죽은 화두를 통해 자기 내적으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타자 속에서 객관으로 존재하는 그야말로 "실재(實際)"이다.

불교의 시선은 급격히 밖을 향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동북아의 평화와 생애의 비전이 공명불이 되지 않고 색신(色身)의 구체성을 얻을 수 있다.

## 조계사-봉은사-화계사-용주사

# '외국인 참선체험프로' 개설

### 4개 사찰·관광공사·10개 여행사 협의회 구성

조계사 등 4개 사찰에 국내 거주 외국인 및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참선체험상품'이 개설되는 등 불교관광 상품이 잇달아 개발될 예정이다. 한국불교의 국제포교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포교원과 조계사 등 4개 사찰, 한국관광공사, 10개 여행사 관계자들은 4월29일 서울 강남 봉은사 선불당에서 불교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협의회를 처음으로 열고 조계사 봉은사 화계사 용주사에 외국인 한

국불교체험 프로그램을 조만간 설치·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또 이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면 외국인에게 사찰음식, 다도, 참선, 불교미술 등을 전문으로 하는 관광 시범사찰을 지정해 운영하고 1~2주일 과정의 사찰 답사 프로그램도 개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논의된 외국인 한국불교 체험 프로그램은 예불참석, 발우공양, 참선실수(實修), 다도실수, 법문 및 상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반나절(4시간, 오전 또는 오후)용, 하루(8시간)용, 1박2일용으로 나눠 진행된다.

반나절용 프로그램은 한국불교 소개 및 사찰 예절, 사찰 소개, 참선 실수(10분 자세 설명, 20분 참선), 예불 참석, 발우공양, 다도 실수 및 스님과의 대화 등으로 꾸며지며 하루용은 여기에 컵등 만들기 추가된다. 또 1박2일용은 절에서 하루를 묵으며 사중생활을 체험하며 일차 탐방, 5개 수어식 등을 주



4월29일 처음 열린 불교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협의회.

가로 운용한다. 프로그램 안내자는 관광가이드보다는 화계사 스님 등 한국 불교를 잘 아는 외국인 스님이나 국제포교사,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으며, 포교원의 지원에 관광공사와 10개 관광회사의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하기로 했다. 포교원 포교국장 성경스님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불교관광상품은 한국불교의 포교와 세계화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만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봉은사 주지 원혜스님은 삼성동 아셈단지과 강남구청, 무형문화재전수회관을 연결하는 강남문화벨트를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 국민화합 평화통일 기원 종교인 예술축제 연다

### 9일 임진각서...불교등 6대 종교 참여

불교를 비롯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천도교 유교 대종교 예술인들이 남북분단의 상징인 임진각에서 '국민화합과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종교예술축제를 거행한다.

국민화합종교예술인협회(회장 김도현 전 문화부차관) 한국종교사예인협회(회장 홍근수 목사) 청정국토만들기 운동본부(회장 성태수)는 5월 9일 오후 1시부터 경기도 파주 임진각에서 청소년과 일반인 등 3천여명이 참석하는 '국평제'(국민화합과 평화통일 기원 축제)를 연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 통일·환경 회화대회(교육부장관상 수

여) △6대종교 합동기원대회 △예술인 기원 한마당(예술인들이 직접 붓과 도구로 회화를 창작함) △법배공연과 전통국(법배이수자 및 전통국 전수자) △청소년 통일 환경 백일장, 사생대회(환경부장관상 수여) △의료봉사 등으로 진행된다.

김도현 종교예술인협회 회장은 "종교와 예술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다"며 "국평제를 통해 통일을 염원하고 종교간의 화합을 더욱 굳게 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대회 개최의 의의를 설명했다. 정성운 기자

## 조계종 종정예경실장 대오스님 임명

조계종 종정 예경·스님은 4월 26일 대오(大悟)스님(사진)을 예경실장으로 임명했다. 예경실장은 종정스님의 명에 의해 종정 고유직무를 보필하며, 종정에 대한 예경과 의견 사무를 담당한다.

대오스님은 57년 대전 출생, 해암스님을 은사로 출가, 81년 자운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84년 자운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86년 해인승가대학 졸업 이후 제정선원에서 25안거를 성만했다.

불교상담교육원 설립추진 조계종 공개간담회 열려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현)은 공신력 있는 상담교육 전문기관의 설립·육성과 사찰 및 신도단체의 상담활동이 활성화 체계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불교상담교육(협)의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 1일 오후2시 포교원 회의실에서 공개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한주영 종회포교원과 간사자 '사찰 상담실 운영현황과 발전방안' △이재현 JTS사무국장이 '기독교내 상담실 운영에 대해' △황선정 자비의전화 연구원이 '불교상담교육의 교육과정' △윤남진 포교계장이 '전문상담 교육기관의 위치와 교육이수자의 포교활동방안에 대하여' 등을 각각 발표했다. 김재경 기자

## 금강산 순례 계획 확정

### 종단대표등 1200여명 참가 신청

불교도 금강산순례 행사계획안이 확정됐다. 6월 2일~5일의 주요 행사일정은 다음과 같다.(행사/날짜/장소) △통일기원법회 및 방생법회/6월 2일/현대금강호 선상 △신계사터 참배 및 약식 법회/3일/신계사터 △문화공연 '아! 그리운 금강산, 민족이여, 통일이여' /3일/온정리 공연장 △전통동 전시회(예정)/2~5일/현대금강호 선상 △금강산 관광/3, 4일/구룡폭포, 만물상, 해금강

(또는 삼일포) 코스. 애초 계획했던 신계사터에서의 통일기원법회는 북한측이 '종교행사 불허' 입장을 고수해 약식법회로 병행된다. 한편 이번 금강산 순례에는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등 주요 종단 대표를 비롯해 스님 450명 등 모두 1천2백여명이 참가를 신청했다. 단체계약에 따라 발생한 차액은 전액 북북동포 돕기 성금으로 사용된다. 정성운 기자

## 소쩍새마을에 '자비의 등'을

조계종 사회복지 법인 승가원이 운영하는 원주 치악산 소쩍새 마을, 이곳은 부랑자와 장애인, 무의탁 노인을 3백여명의 보금자리입니다. 소쩍새 마을은 현재 강원도 횡성에 새로운 보금자리 승가원 종합복지타운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난으로 소쩍새마을의 보금자리 건설불사는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어 불차여러분의 애정 어린 손길이 더욱 필요합니다. 올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본사는 승가원과 함께 소쩍새 마을에 자비의 등 밝히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동참비: 1인당 1만원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37-8881  
복지법인 승가원 (02)928-0750  
△접수내용: 성명 주소 생년월일(음 양) 영가등도 접수 받습니다.  
△접수기간: 3월31일~5월 21일  
△입금계좌  
● 한빛은행 059-170968-13-001  
● 외환은행 142-22-01704-2  
● 국민은행 093-01-0293-459  
● 우체국 011809-032390  
● 농협 063-01-192131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승가원 소속 스님 13분이 후원해드립니다.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8881

## 현대만평

박구원

신님들 때문에...

## 통도사 본말사 신도에

### 신도증 발급안대 '물'의

통도사 본말사 신도들에게 신도증이 재발급 되지 않아 신도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 통도사 말사의 한 신도는 "신도증을 재발급하러 갔다가 통도사 본말사 신도에게는 신도증이 신규는 물론 재발급되지 않으니 다른 사찰로 가라는 말을 들었다"면서 "통도사에 대한 징계로 인해 신도의 신도증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포교원 관계자는 "총무원에 통도사 신도들의 신

도등록이 가능하도록 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상태"라고 해명했다. 김재경 기자

## 영하스님등 징계 확정

### 조계종 재심호결원

조계종 재심호결원(원장 월서)은 4월28일 제15차 심판부를 열어 영하스님등 10명의 징계를 확정했다. 영하-공권정지 9년, 효종-공권정지 3년, 지가-공권정지 2년, 종석-공권정지 1년, 옥문-공권정지 6월, 종호 하종-면직, 탄공 송목-문서전격. 정성운 기자

# 송광사 여름수련법회

짧은 출가, 긴 깨달음 - 출가 4박 5일

한국 불교사에서 승보의 상징적 사찰인 송광사는 올해도 스물아홉번째 여름수련법회를 마련했습니다. 일상의 경험과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의 방향과 의미를 모색하고자 애쓰는 사람들을 가까이 모시고, 불교적 삶의 논리와 정서를 체득하는 기회를 마련 해 드리하고자 합니다.

이는 교파적 이데올로기의 실현을 위함이 아니며, 출가적 경험을 통하여 자신의 삶을 정리해 보고 미래지향적 새로운 삶을 설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스님들과 똑같은 출가적 생활 체험, 즉 습의, 예경, 수행, 간경, 정법, 운력으로 이어지는 "출가 4박5일"입니다. 능력보다는 청정한 승풍을 먼저 생각하는 송광사는 총림(종합수도원)이며, 120여명의 스님들이 상주하는 청정수행 도량입니다. 미술사적, 사상사적 의미 또한 돋보이는 승보종찰 송광사의 여름수련법회에 참석하시면 잔잔한 감동으로 길이 남을 것입니다.

● 아래 일정과 절차를 자세히 보시고 가급적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1999년 여름수련법회 일정

차수	기간	모집인원	대상
제1차	1999년 7월 4일 - 7월 8일	120명	· 연령 20세이상 65세이하, 일상생활이 가능하신 분.
제2차	7월 11일 - 7월 15일	120명	
제3차	7월 18일 - 7월 22일	120명	
제4차	7월 25일 - 7월 29일	120명	
제5차	8월 1일 - 8월 5일	120명	
제6차	8월 8일 - 8월 12일	120명	
제7차	8월 14일 - 8월 17일	120명	

1999년 4월 30일

대한불교 조계종 승보종찰 송광사 조계총림 주지 현지 수련원장 현고

●모집요강

- 신청방법
  - 접수기간: 1999년 5월 20일부터 6월18일까지 접수
  - 접수처: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흥리 12 송광사 수련원장 앞
  - 신청서: 신청서는 별도의 양식이 없으며, ①이름(한글,한문)②주민등록번호③주소④우편번호 필히 기재) ④직업(학생법회 신청자는 학교명, 학년을 기재) ⑤전화번호(직장, 주택) ⑥종교 ⑦수련법회 참가 경험유 무(최근3년내) ⑧원하는 차수 참가하고자 하는 이유를 기재하여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합니다. (학생법회 참가자는 우측상단에 학생법회 참가자임을 표시)
- 자원봉사 활동
 

일정표는 수련법회와 같으며, 매회 10명 내외로 수련법회 참가 경험이 있는 분을 주 대상으로 합니다. (학생법회시 참가자의 부모님은 우선 합니다.)
- 심사결과 통보 및 등록
 

송광사 수련원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6월23일까지 확정하여 개별통보하며, 통보를 받은 분은 6월 30일까지 동참금 7만원(학생법회 동참금 - 4만원)을 통보된 구좌에 온 라인 송금하는 것으로 등록이 확정됩니다. 단 자원 봉사자는 동참금이 없습니다.
- 기타사항
 

안내전화: 0661)755-9092, 9093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만 가능)  
전 송: 0661)755-0408 (팩스로 신청하신 분은 팩스 전송 후 꼭 전화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